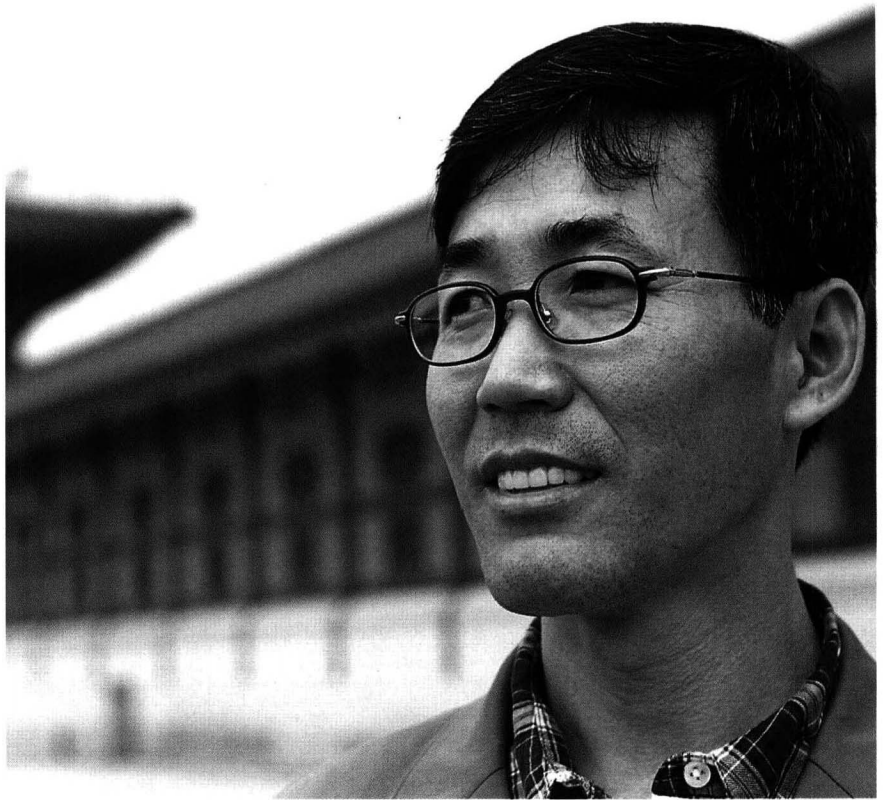


# 중중몰이와 잣은몰이, 신명나는 한판 굿 통해 만나는 시대의 예인藝人

밀리언셀러 《소설 토정비결》의 작가 이재운 씨(45)를 통해 불꽃처럼 살다 바람처럼 사라진 조선의 한 예인藝人이 복원되었다. 남사당패의 꼭두쇠로 민초의 한을 달래주던 바우덕이가 바로 그 인물이다. 사당패 출신임을 볼 때 천민계급임을 쉽게 짐작하겠지만, 남사당男寺黨이라는 소속과 바우덕이라는 질박한 이름과 달리 그는 조선의 '여인'이었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근본도 모르는 천한 여자였으니 번듯한 족보가 있을 리 없고, 시집가서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 따듯한 밥 한번 지어본 적 없는 떠돌이 예인으로 살다 그렇게 죽었으니 당연히 행장도 없는” 인물이다. 그러한 여인이 열다섯 어린 나이에 남사당패 우두머리격인 꼭두쇠로 올라 한 시대를 풍미하고 홀연 사라져 버렸으니, 역사소설의 일가一家를 세운 작가가 이를 놓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작가 이재운 씨의 신작장편 《바우덕이》의 출생내력은 여기에 있다.

“안성에 자리 잡은 무용가 흥신자 씨의 웃는돌 센터에서 머물고 있을 때, 바우덕이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안성 일대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지요. 천민의 여아로 태어나 남사당패 꼭두쇠까지 오른 바우덕이의 이색異色을 듣는 순간, '내 소설의 소재다' 싶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바우덕이에 관한 자료는 전무했지요. 안성의 어르신들을 찾아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는 자료를 얻긴 했는데, 소설로 형상화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팩트Fact도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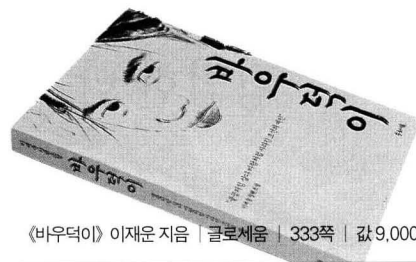


족했고 또, 열이면 열 바우덕이에 관한 팩트가 달랐거든요.”

그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한 인물의 생을 모조리 '창작'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바우덕이란 인물에게서 순수히 두 손 들고 떨어지겠다 생각하던 어느 날, 그는 안성문화원장으로부터 1년에 한 번 바우덕이를 위로하는 굿판이 벌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굿을 하면 바우덕이의 혼이 오나요?”란 그의 물음에 안성문화원장의 대답은 “그럼, 오구 말구”였다. 고개를 절레 “그럴 리가 있나요” 한 마디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작업실로 돌아온 그는 어느 순간 ‘아차, 이것이구나!’ 싶었다. 바우덕이와 남사당패 모든 이가 어우러진 흥겨운 한판 굿이라면! 열크러진 바우덕이의 생이 술술 풀리는 순간이었다.

소설 《바우덕이》는 실제 작가의 경험을 얼마간 담고 담백하게 시작된다. 잡지사에 ‘조선을 빛낸 여인들’이란 글을 기고하는 주인공 ‘나’가 바우덕이에 관한 얘기를 듣고 기사와는 별도로 소설을 쓰기 위해 사라진 바우덕이의 존재를 찾아나선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굿을 하면 바우덕이의 혼이 오나요?”란 그의 물음이 소설 속 주요한 장치로 들어서 있다는 사실이다.

“굿을 통해 바우덕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통해 바우덕이의 존재를 말하게 한다면 색다른 소설적 구조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플롯이라면 열이면 열, 저마다 틀린 바우덕이 구전의 묘미가 오히려 살아날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어떤 자료도 기록되지 않은 인물을 소설화하면서 이것이 바우덕이의 생



《바우덕이》 이재운 지음 | 글로세움 | 333쪽 | 값 9,000원

이다. 하고 줄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의 말처럼 이 소설의 묘미는 플롯에 있다. 굿을 통해 한 명씩 접신되어 불려 나오는 바우덕이 주변의 인물들은 저마다 다른 진술을 내뱉는다. 바우덕이의 아버지는 이는 먹여 살릴 재간이 없어 남사당패에 바우덕이를 맡겼다가 하면, 남사당패 놀보 천만덕은 당시 꼭두쇠 윤치덕이 어머니를 따라 남사당패를 구경나온 바우덕이를 훔쳐왔다고 한다. 순연한 믿음으로 절대 금기 천주를 믿었다는 바우덕이 어머니의 말과는 달리, 윤치덕은 서양선교사와 바우덕이 어머니의 치정을 말하기도 한다. 한바탕 신명나는 굿판을 통해 골계미 넘치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대중없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며, 그랬으면 그랬겠지 아무려면 어찌려고 얼쑤, 추임새마저 넣게 되는 것이다.

바우덕이를 기리는 ‘2003 안성남사당바우덕이 축제’가 10월 2일~5일 바우덕이의 고향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다. 작가 이재운 씨는 이번 행사에 《바우덕이》 저자 사인회와, 문학강연이 계획되어 있다. 안성 옛날 장터를 재현하고, 풍물경연대회, 바우덕이 망꺾레가 열리는 가운데 남사당패의 흥겨운 놀이도 재현되는데, 고즈넉이 그곳에 머물다 홀연히 사라지는 바우덕이의 자취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2003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내용

- 남사당놀이 상설공연, 안성옛날장터

“김삿갓과 최재우 등 역사가 증명하는 인물들을 《바우덕이》 속에 함께 담은 것 역시 큰 무리는 아니지요. 당대 스타였던 김삿갓이 바우덕이를 그저 지나쳤을 리 만무했겠죠. 바우덕이 역시 김삿갓의 시를 사당패놀이의 소재로 다루지 않았을 리 없을 테구요. 종이 뒤쪽에 색을 칠해 대상의 질감이 살아나게 하는 수묵화의 기법이 있어요. 바우덕이 뒤에 그러한 인물들을 내세워 바우덕이 존재의 질감, 그리고 바우덕이가 살았던 시대를 제대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번 소설을 위해 그는 굿판에서 접신을 실제 체험하기도 했다. 움켜쥔 신장대가 무섭게 떨리고, 천계의 세계가 불분명한 의식 속에서 열렸다 닫혔다 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나’의 몸에 바우덕이를 사랑했던 이경화가 접신되는 장면 그의 체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재현마당과 참여·체험장

- 전국풍물경연대회, 전국옛장수겨루기, 퓨전콘서트, 바우덕이 음악회
  - 한·일 타악한마당, 풍물명인전, 남사당놀이체험마당
  - 민속놀이, 농가체험마당, 바우덕이 망꺾레, 민속 대동놀이 등
- 주최 \_ 안성시 안성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 \_ 안성문화원, 안성예총,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 홈페이지 \_ <http://www.baudeogi.com>

《소설 토정비결》을 시작으로 그는 오랫동안 역사소설에 전력을 다해 왔다. 대학시절 문장사에서 출간된 《아드반》을 목록에 넣자면 이십 년이 넘게 역사소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작품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학을 공부한 스님을 많이 따랐는데, 스님이 풀어내던 이야기들은 지금 제 소설 이상의 것이었지요. 작품을 통해 많은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일은 작가된 이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동년배 작가의 작품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순문학의 몫을 감당하는 그들 역시 문학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